



2만불 시대

중소기업이 일어납니다



중소기업청
브리핑

제 15호 2004년 4월 16 (금) 공보담당관실 TEL.042-481-4329~32 / FAX.042-472-3264

벤처기업 M&A 지원제도 본격 시행

-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시행령 개정 -

금년 1월 벤처기업 주식 교환제도 개선, 합병 및 영업양수도 절차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된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의 구체적 시행을 위한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안)이 13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4월 21일부터 본격 시행하게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과 다른 기업간의 전략적 제휴, 영업양수도, 인수·합병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른 기업이 벤처기업에 주식으로 현물출자하고, 출자를 받은 벤처기업이 신주(新株)를 발행하여 출자한 기업에 제공하는 방식의 상호 주식교환을 허용하고, 교환을 통해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하며,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완화하는 등 벤처기업 M&A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에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을 개정하였다.

이 법의 구체적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벤처기업이 주식교환을 하고 세제지원(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고자 하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그 주식교환 내용을 확인하여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M&A 대상 기업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기술거래소, 기술신보, 신용평가회사 등을 공인평가기관으로 지정·운영하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벤처기업구조조정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식교환 내용의 검토와 함께 벤처기업의 구조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이 본격 시행되면 벤처기업 M&A 절차가 간소화되고, 그 동안 음성적·편법적으로 이루어졌던 M&A가 합법화됨에 따라 M&A 및 전략적 제휴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창업벤처국
창업벤처지원과
(042-481-4387)

소상공인 상담서비스 3시간 연장 제공

- 직장인 창업기회 확대 -

중소기업청은 제주지역을 제외한 전국 11개 선임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시간을 밤 9시까지 연장하여 방문 및 전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 12개 중소기업청에서는 첫째 및 셋째주 목요일 밤 7시부터 10시간까지 매월 2회 야간 창업 강좌를 개설한다.

우선 4월 셋째주부터 6월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이 기간동안의 야간서비스 실적 및 창업 교육 수요 등을 반영, 상담시간 연장 센터 확대 및 추가 창업강좌 개설 등을 검토하여 7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창업을 꿈꾸는 직장인들에게 보다 많은 창업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지난 1999년에 개설하여, 현재 전국 60개 지역센터에서 소상공인에게 무료로 창업 및 경영개선 상담, 창업강좌, 정책자금 추천, 종합 상권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선임센터의 야간상담 및 야간 창업강좌 일정은 소상공인지원센터 홈페이지(www.sbdc.or.kr)와 각 지방중소기업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하고 있다.

▶ 벤처창업국
소기업창업과
(042-481-4408)

중소제조업 202개사 작업환경 개선, 197억원 지원

중소기업청은 열, 냄새, 분진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2개사(86개 과제)에 197억원을 지원한다.

중소제조업의 제조공정상 발생하는 열, 분진, 냄새 등 직무기피요인 제거장비를 개발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추진해 온 생산현장 작업환경 개선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금년부터 생산현장 직무기피요인이 많은 67개 제조업종을 대상으로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수요 중소기업 3개사 이상이 컨소시엄을 구성·개발하는 ‘컨소시엄 과제’ (52개 과제)와 중소기업이 자체 개발하는 ‘중소기업지원과제’ (34개 과제)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지원규모는 컨소시엄과제는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최고 5억원까지, 중소기업지원과제는 총 사업비의 70%이내에서

최고 1.5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하였다.

분야별 선정과제는 금속가공 분야와 기계가공분야가 각각 30개(34.8%)로 가장 많고, 화학제품관련 분야가 14개(16.2%), 섬유·피혁관련분야가 12개(14.0%)순이며,

지원대상 업체수로는 금속가공 분야가 74개 업체(36.6%)로 가장 많고, 기계가공분야가 71업체(35.1%), 화학제품관련 분야가 30개 업체(14.9%), 섬유·피혁관련분야가 27개 업체(13.4%)순이다.

또한 중소기업청은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는 원활한 장비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지원자금을 조속히 지원함과 동시에 조기에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이 조성되도록 하여 중소기업에 인력유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체 생산현장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조기에 개선하기 위해 이미 개발된 96개 장비의 주요내용을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홈페이지(www.kitec.re.kr)에 게재하여, 설치 희망업체의 접수를 받는 등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구조개선자금 등 관련 정책자금과 연계하여 지원해 나가는 한편,

생산현장 직무기피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과제들을 보다 많이 개발·보급하여 인력유입 인프라가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예산을 매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업성장지원국
인력지원과
(042-481-4392)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위해 14개국, 38개 해외지원센터 운영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에 수출대상국의 시장조사, 수출컨설팅 등의 종합적인 수출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중국 등 14개 주요 수출국에 38개 민간기관을 해외지원센터로 지정했다.

이를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12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미국 6개, 일본 4개, 독일 및 러시아가 각각 3개씩 지정되었으며, 특히 브라질·케냐·인도 등에도 센터가 지정돼 벤처기업의 다양한 해외진출 수요에 맞춰 지원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금년도에 지정된 해외지원센터는 교포 컨설팅사, 캐피탈 해외지사 등 해외 현지에 네트워크가 구축된 민간기관으로서,

벤처기업에 대해 해외 시장조사·정보 제공, 바이어 발굴, 마케팅 대행,

투자 알선, Partnership 구축 등 해외진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해외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이를 위해 업체당 10백만원의 컨설팅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동 센터의 지원을 받을 벤처기업 142개사도 선정하여, 이들 기업이 현지 전시회 참가, 법인 설립 등 현지진출에 소요되는 경비를 15백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2001년 7월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해외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해 개별 벤처기업의 상황 및 요구에 1:1 맞춤 지원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수출 2천억원, 현지 투자유치 1백억원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원대상 업체의 만족도도 높아 해외진출

지원사업 중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 기업성장지원국
해외시장과
(042-481-4476)

불법 기술유출·복제 피해 예방 요령 설명회 개최

- 12일 서울을 시작으로 대전 등 6개 지역 실시 -

중소기업청은 중국 등 외국의 기술유출·복제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오는 12일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전문인력 및 지식부족 등으로 기술유출 및 복제에 대한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지방 중소기업청,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중소기업 유관기관의 보안 및 해외관련 민원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업체에 대한 법률자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등 현지 진출기업의 애로상담 창구 개설·운영, 특허청의 '해외 지식 재산권 보호센터'와의 연계체계를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우리 중소기업의 산업기밀 보호수준과 문제점 및 산업재산권 보호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이번 설명회가 정보와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피해를 막지 못했던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중진공 현지 사무소 등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현지화를 돕는 기관들의 기술유출 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피해사태 방지를 유발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중기청은 현재 추진중인 중소기업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 사례별 대응사례집을 만들 계획이다.

한편, 중기청은 그간 불법 기술유출 및 복제 피해 예방을 위해 국정원, 중진공 등과 함께 광주, 인천, 전북 등지를 돌며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특히 국정원, 특허청, 학계 및 언론기관 등과 함께 피해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기도 했으나 피해사태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이번 순회설명회를 열기한 것이며,

수출 중소기업과 현지투자업체 등 2000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피해사태 조사도 실시중에 있다.

▶ 기술지원국
시험평가과
(042-481-4457)